

3-31-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창세기 6:5-8

말씀제목: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자가 받는 구원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 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했습니다.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단 한 사람 노아는 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창 6:13)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은 단 한 사람 노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곶팠 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악판을 칠할지니라. 이것이 네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가 삼백 큐빗이요 너비가 오십 큐빗이며, 높이가 삼십 큐빗이니라.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되, 위로부터 일 큐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 하고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 층, 이층, 삼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창 6:14-17)

노아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 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육신의 일만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으라고 전파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노아에 대하여 의의 전파자라고 증거했습니다: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벧후 2:5)

사도 베드로는 노아 시대처럼 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 tk 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니라.”(벧후 3:3-10)

옛 사람 노아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천 년 전에 자신의 독생자시며 태초에 말씀 하나님이셨던 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자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그분에 대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므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던 노아를 다가오는 홍수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것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서 은혜를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입으로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17)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 즉 그가 십자가에서 세상 죄와 사람의 양심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피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전적인 은혜로 혼들이 구원을 받아 앞으로 진노의 날 즉,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엡 2:8-9, 롬 5:9)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복음을 변개시키는 다른 복음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갈 1:6-9)

예수께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마 7:21-23)

또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길인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소서.’라고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고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도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라고 하리라.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과 너희 자신은 쫓겨나는 것을 볼 것이니 그때에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리라.”(눅 13:24-29)

아멘! 할렐루야!